

영생의 부활인가? 영벌의 부활인가?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실히 입증, 예고해준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활의 첫 열매이었다 (고전 15:20). 그런데 유념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한다는 사실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또한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살아난다. 따라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은 사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 중에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은 신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것일까?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29)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신자들 불신자들이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예외 없이 다 부활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할 것이지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무엇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일까? 선행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로만 생각하고, 악행을 범법 행위로만 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과 악행이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이 죄이다(롬 14:23).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마음에서 행한 그 어떤 선행도 죄요 악한 일이다.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이다.(약 4:17) 여기서 말하는 선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 것을 하리라”(약 4:15)는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행과 악행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인 것이다.

부자 청년 관원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잊지 말자(눅 18:18-30).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분을 따르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시며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선한 양이 되어서, 그분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를 영생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살리시는 오직 한 분이신 선한 하나님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한 일이다. 따라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를 영생과 생명의 부활로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따라가야 그것이 착한 행실, 선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하면 인간의 모든 선행은 악행이고 심판과 영벌의 부활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영생의 부활인가? 영벌의 부활인가?

가? 그 갈림길은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장차 어떤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가?